

農村主婦의 家事勞動에 관한 연구(II)*

- 경북지방 전통농지역과 상업농지역 주부의 가사노동 실태의 비교분석 -

A Study on the Rural Housewives' Household Labor(II)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Housewives' Household
Labor Practices in Kyungpook Province -

大邱大學校 家政大學 家庭管理學科

助教授 : 趙 熙 今

Dept. of Home Management

Taegu University

Assistant Prof. : Hee Keum Cho

목 차

I. 문제의 제기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가사노동의 의미 및 가치
2. 가사노동시간
3. 가사노동환경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지역의 선정
2. 조사도구 및 조사절차

IV. 결과 및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

- 1) To analyze the time use and the environments of rural housewives' household labor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e.
- 2)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household labor time.

In this study, the rural area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e. One is traditional agricultural area-Seokchon Dong in Youngcheon Kun, and the other is commercial agricultural area-Dongpo 1 Dong in Sungju Kun. Two areas are located in Kyungpook Province. 145 housewives dwelling in above two villiages were interviewed. The statistic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y, percentile, T-test, χ^2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

* 이 연구는 1988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1) household labor time had no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Youngcheon and Sungju. But agricultural labor time was longer in Sungju than in Youngcheon.
- 2) household labor environments in Sungju were better than those in Youngcheon.
- 3) household labor time was influenced by agricultural labor time and socio-cultural time.

I. 문제의 제기

1960년대 이후 계속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전략이 공업화, 도시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낮아지고,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농업·농촌·농민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들중 하나는 광범위한 농촌 노동력의 도시 유출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 및 노동인구의 고령화, 여성화라는 노동력의 질적 저하 문제이다(박현채 1984, p20, 1958, pp57~58; 정영일 1984, p45; 최양부 1986 a, pp341~363, 1986 b, p134; 최재석 1988, p472).

또 전반적인 사회, 경제에서의 변화는 농업의 변화도 수반하게 되는데, 그것은 상업적 농업의 전개, 기계화의 진전, 농촌경제의 화폐경제화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박현채 1988, p58). 즉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농촌의 특징은 계절성이 있는 쌀농업을 그 근간으로 하며 소농적인 가족경제 체제로서 쌀생산을 중심으로한 자급 농업 형태를 갖는 반면, 변화하는 농촌은 시장경제에 편입되어 상업화 기계화되며 지역적으로 전문화된 상업농업으로 전환되고 있다(최양부 1986 b, pp132~139). 전반적인 우리나라 농산품의 상업화율은 1961년의 24.3%에서 1980년 75%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47년에는 미곡이 농업생산액의 72.2%를 차지했었으나 1975년에는 52.1%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장윤식 1985, p120).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경지이

용현황과 농업조수입에서 식량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경제작물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 그러나 개별지역으로 보면, 그지역 주변의 도시화 정도, 교통의 발달, 농업기술의 발달과 같은 외적요인과 내적으로는 농민들의 동기화 정도에 따라(장윤식 1985, p112) 전문적으로 경제작물만을 재배하는 완전한 상업적 농촌에서 아직도 쌀농사 중심의 전통적인 농업을 주로하는 농촌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농촌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토지소유 정도에 따른 영농규모별, 또는 평야, 산간, 중간지대와 같은 지대별로 나누어서 보는 것외에 그 지역 농업의 성격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한편 농촌노동력이 고령화되고 여성화 되었다는 것을 농촌여성의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의 유출 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농업노동의 증가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농촌여성이 농업에 많은 노동력을 투하하므로써 농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많은 경험적 연구나 통계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이효재·김주숙 1977; 김주숙 1979, 1981, 1982, 1985; 이미경 1983; 조 형 1981; 최재석 1988; 한국여성개발원 1987; 농림수산부 1979, 1985, 1988). 그러므로 농업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중을 고려하면 농촌여성에게 여성농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농촌여성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김주숙 1984a, 1984 b, 1985, 1987, 1988; 김영란 1989). 그러면 이상과 같이 농업 및 농촌의 성격이 변화하고, 농업에서 차지하는

주 1) 농림수산부는 1983~1986의 복합영농시범사업, 1987년 이후의 본격적인 복합영농사업을 추진하여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농업소득원을 확충했다고 밝히고 있는데(농림수산부 1988, p118), 농가의 경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1980년에는 식량작물(미곡, 맥류, 두류, 기타)이 1,982千ha로 전체면적의 71.7%, 경제작물(채소, 과수, 기타)이 783千ha로 28.3%이던것이 1986년에는 식량작물 1,707千ha(66.4%), 경제작물 864千ha(33.6%)로 늘어났으며, 농업조수입의 농작물수입에서도 식량작물 수입이 1978년 110만원으로 75%경제작물 수입이 37만원으로 25%이던것이 1987년에는 식량작물이 326만원(64.9%) 경제작물이 76만원(35.1%)으로 경제작물수입의 비중이 증가했다.(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통계연보, 1988)

농촌여성의 역할과 비중이 증가하는 시기에 가정에서 수행하던 가정주부의 역할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에 관한 연구들은(최재석 1975, 1988; 전승규 1987) 농촌주부의 가정에서의 역할 즉 가정내 가사노동에 대한 비중이나 역할은 거의 감소되지 않았으며 단지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농업노동시간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농촌진흥청 1980, 1984, 1988).

그러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사노동은 하나의 가족 또는 가정이 영위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노동이다. 비록 가사노동의 경제적가치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김혜경 1985; 문숙재 1988, 1989; Paul Smith 1986; 손덕수 1985) 가족원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또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농촌주부가 늘어나는 농업생산자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아직도 중요한 비중으로 남아있는 가사노동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농촌주부의 가사노동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부의 농업노동 실태를 파악해야 하고 이는 그 지역 농업의 성격을 규명하므로써 가능해 진다.

Strober와 Weinberg(1980)는 취업주부가 자신의 취업으로 인해 부족해 지는 가사노동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안들로 가정기기 및 설비로 대체하거나, 다른가족원 및 유급 보조자를 이용하거나, 가사노동 자체의 양과 질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자신의 사회활동시간이나 수면, 여가활동시간을 감소시키는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부의 가사노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업의 성격이 다른 두지역을 비교하여 각각의 가사노동시간 및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가사노동 환경을 분석하며, 또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가사노동의 의미 및 가치

가사노동이 가정내에서 가지는 의미는 가사노동을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Walker & Woods 1976, p 10), 또는 가족원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가족이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노동이라고(문숙재·채옥희 1986, p55)하거나, 생산의 개념을 확대하여 가사노동에 의해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을 가계생산 혹은 가정생산이라고 하였다(Bertler & Owen 1980, p17). 더 나아가서는 가정생산을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해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가사노동은 가정생산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생산요소로 규정하여 생산적인 기능을 더욱 강조하기도 한다(문숙재 1988, p32, 1989, p162).

大森和子(1981, p17)는 가사노동의 성격을 가사노동이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별가정에서 가족원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가사, 육아, 가정관리를 하는 노동이고 또 사회적 노동과정의 노동에 대해 사회적 노동 즉 개인적 소비과정의 노동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사노동이 가지는 사회·경제적인 의미는 가정이 사회 구성의 기본적인 단위이며 사회 성원의 재생산과 사회적 노동력의 재생산을 담당하고 가사노동을 통하여 가정의 기능을 수행하므로써 사회의 안녕, 질서에 기여하는 것이다(Beechy 1978, p176; 문숙재·채옥희 1986, p157).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가사노동이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먼저 가사노동이 소비자의 실질적인 효용을 증가시키므로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사노동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여러가지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입장의 연구는 우리나라 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직종별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기회비용방법, 총합적 대체비용법, 전문가대체비용법, 또는 주관적인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가사노동의 경제적인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있다(이윤근 1976; 문숙재 1976; 문숙재·정영금 1984; 이기영 1981, 1982; 김예실 1986; 최명숙외 1986).

한편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는 가사노동이 사용가치를 가지는 필요노동이지만 교환가치를 가지지 않으므로 상품화 될 수 없고, 상품화 되지 않으면 화폐가치가 없으므로 가치로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마르크스의 가치론이 상품의 생산과 교환을 다

루지만 가사노동은 그 대상이 아니며 또 생산적인 노동은 반드시 자본과 교환된다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내적인 문제 때문이지 단순히 마르크스적 분석때문만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Coulson 1985, p258 ; Smith p1986, pp190~198).

가사노동이 가정내에서나 사회·경제적으로 가지는 의의 및 가치는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나 그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는데는 구체적으로 많은 기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2.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 시간은 여러가지 생활수단의 양과질,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소득, 생활수단의 객관적인 필요량을 좌우하는 가족원 수와 가족주기의 단계, 수납 가능한 주거공간과 형태, 물적 자원의 사용과 관련한 의사결정 및 생활양식, 취업상태 그리고 가사노동 담당자의 습관과 기술, 적성, 능력, 심리상태 등의 개인적 자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大森和子外 1981, p119).

즉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은 주부의 연령, 취업 여부 및 습관이나 능력등의 개인적인 조건과 소득, 가족수, 가정생활주기, 주거설비 및 기기 이용도 등의 가정적인 조건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나 가공식품의 이용정도 등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사노동 시간에 대한 연구가 처음 시작된 1968년 부터 1987년까지 20년간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를 연구한 김선희(1989)에 의하면, 전체적인 가사노동시간은 큰 변화가 없으며 각 가사노동 영역별 시간에서는 의생활관리 시간이 줄어든 반면 가족관리 시간이 증가했고 식생활 시간이나 주생활관리 시간은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농촌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농업의 계절적인 수요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므로 농번기와 농한기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농촌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농업노동시간과 분리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농촌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농업노동시간의 변화를 표 1에서 보면, 1966년에는 가사노동시간이 8시간 49분으로 전체 노동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았으나 1975년 이후 농업노동시간이 증가 하면서 가사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개인적인 연구에서는 일

	표 1. 농촌주부의 노동시간					단위 : 시간 : 분(%)	
	1966 ¹⁾	1973 ¹⁾	1975 ¹⁾	1979 ²⁾	1983 ²⁾	1988 ²⁾	평균
가사노동	8 : 49 (72.1)	6 : 40 (58.9)	5 : 15 (48.8)	4 : 28 (31.4)	4 : 29 (33.5)	4 : 52 (38.2)	5 : 24 (53.2)
농업노동	3 : 25 (27.9)	4 : 39 (41.1)	5 : 31 (51.2)	9 : 46 (88.6)	8 : 54 (66.5)	7 : 52 (61.8)	4 : 45 (46.8)
총 노동	12 : 14 (100)	11 : 19 (100)	10 : 46 (100)	14 : 14 (100)	13 : 23 (100)	12 : 44 (100)	10 : 09 (100)

자료 1) 농촌진흥청 : 생활기술교본(1978), p321 조형 : 1981, p252
 2) 농촌진흥청 :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 보고서(1981, 1984, 1988)에서 재구성

관된 변화를 보기는 어려우나(남명희 1973, p279; 이영심 1976, p22; 김효숙 1983, p38) 1986년 전국규모 2005가구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시간이 농번기 2시간 58분, 농한기 4시간 50분 평균 3시간 54분으로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개발원 1986, p84).

3. 가사노동 환경

1) 가정기기 및 설비

산업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가전제품 및 편의시설의 보급은 크게 증가되었다. Strober등은(1980, p338) 가사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첫번째로 가정기기의 사용을 들고 있으며, Fisher(이기영 1981, p220)도 가사노동이 국민경제에 편입될 수 있는 방법 중 가사노동의 기계화가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가정기기의 보유를 가사노동 시간과 연결시켜 조사한 연구에서는(이정수·고경애 1985, p79; 한국여성개발원 1987, p99) 가전제품 및 편의시설이 주부들의 주관적인 평가 즉 가사노동을 쉽게 해주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실제 가사노동시간을 줄이는 데는 별효과가 없었음을 밝히고 있다. 반면에 영역별 가사노동 시간의 변화에서 노동강도가 큰 의생활관리 부분의 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육체적 노동의 시간감소에는 기여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취사나 설거지 등의 식생활관리도 시간 자체의 감소는 없지만 일의 강도를 감소 시키고 일하는 자세를 변화시켜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가정기기 및 설비수준의 증가는 실질적인 주부의 가사노동 감소에 기여한다고 하겠다.

2) 가사노동의 분담

도시 가정에서 취업주부는 살림살이를 혼자서 도맡아 하는 경우는 드물며 유·무급의 보조자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서는 주로 자녀나 할머니의 무급 보조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서는 유급 보조자에 의해 가사노동이 분담되고 있다(이동원 1976, p258; 이연주 1984, p144; 이정수 1984, p124).

농촌가정의 가사분담은 전통적으로 남자에 의해 뜰 청소와 자녀 버릇 고치기에, 그외의 가사노동은 딸 및 시어머니에 의해 분담되어 왔다. 즉 부부가족에서는

딸이 가사노동의 전영역 그중에서도 설거지 및 아이 보기에서, 직계가족에서는 시어머니가 장담그기 및 아이보기에서 상당한 정도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최재석 1975, pp129~134; 박부진 1975, pp34~35; 이효재·김주숙 1977, p345).

그러나 농촌주부의 중요한 가사분담자인 미혼 자녀 특히 딸은 도시 산업부문에 취업하여 대부분 도시에서 거주하거나 또는 학업을 위해 도시에 진출하게 되므로 더 이상 주부의 가사보조자로써 남아 있지 않으며(조희금 1987, p102; 김주숙 1985, p226), 또 농촌가정도 이제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 보다는 핵가족 특히 1세대 가족의 비율이 높으므로(최재석 1988, pp90~92) 부세대인 시어머니의 가사분담을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농촌가정에서 주부의 중요한 가사분담자로 남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남편의 가사분담은 아직도 매우 낮은 상태이다(최재석 1988, pp107~122; 농촌진흥청 1981, 1984, 1988).

3) 가사노동의 사회화

자본제 생산의 발전에 따라 상품생산영역이 확대되면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가사노동에서의 변화는 자본주의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의한 가사노동의 대체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가정내에서 행해지던 가사노동이 자본주의의 상품과 서비스로 대체되어 가는 과정을 가사노동의 사회화라고 한다. 이에 는 사회의 산업노동에 의한 대체 뿐 아니라 분업·협업과 같은 상호부조적인 대체, 그리고 사회적·공공적인 서비스의 이용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이기영 1987a, pp23~26).

우리나라 도시가정의 사회화정도는 높은 편이 아니며 영역에 따라 다른데, 식생활영역 보다 의생활영역의 상품대체 정도가 훨씬 높고, 식생활영역에서는 저장식품류 보다는 편의식품류 즉 인스턴트 식품의 이용 정도가 높았다(이기영 1987, pp56~57; 문숙재·홍성희 1988, pp164~165).

도시에 비해 농촌가정의 가사노동 사회화정도는 훨씬 낮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농촌가정의 경우 1960년대 말까지도 8% 정도가 옷감을 자급하고 77% 정도는 가정에서 옷을 지어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재석 1975, pp170~177). 그후 70년대의 조사에서는 농촌 가정에서도 옷감을 직접 만들거나 옷을 지어 입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식생활영역의 식품류는 대부분 자급하는 것으로 보아(이효재·김주숙 1977, p345) 농촌가정 역시 의생활영역의 사회화가 식생활 영역보다 먼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업적 농업의 전개 및 농가경제의 화폐경제화의 진전으로 미루어 볼 때 식생활영역 중 편식품류의 이용 및 부식류의 구입등에서 사회화의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 때 활발한 부녀회의 활동으로 농번기 마을 공동 세탁장, 공동 취사장의 설치와, 마을내 공동 구판장 및 탁아소의 운영등은 가사노동 사회화의 한 형태인 협동화의 시도로서 제시될 수도 있겠다.

이상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부의 가사노동 실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농촌에서 농업성격의 변화는 농가 전체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함께 농촌주부의 노동형태 중 가사노동의 수행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농업의 성격이 각기 다른 두 농촌지역을 비교하여 가사노동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농촌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둘째,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구성 및 가사노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사노동 환경은 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농촌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농업의 성격에 따른 농업의 계절성 즉 농번기와 농한기를 고려하지 못했는데, 이는 조사시기를 동일하게 했을 때 상업농지역은 농번기이고 전통농지역은 농한기였으므로 두 요인이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본 연구의 특성상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그 마을의 주부를 전수조사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농촌전체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조사대상지역의 특수성이 강하게 결과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지역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지역을 전통적인 답작을 주로하는 전통농지역과 경제작물을 주로 하는 상업농지역으로 나누어서 살펴 보고자, 경제인류학 전공자와의 논의를 통해 상업농지역으로 경상북도 성주군을 전통농지역으로는 영천군을 임으로 선정하였다. 각 군에서는 군 농사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1개면을 추천 받고 다시 각면에서 1개 마을씩을 추천받았다.

연구의 목적상 각 마을의 특성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업농지역-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동포 1동 성주읍에서 9km가량 떨어져 성주군의 북동쪽에 위치한 동포동은 성주군에서는 비교적 넓은 들을 가진 곳이며, 성주에서 김천으로 연결되는 잘 포장된 도로가 마을 지나가므로 교통이 편리한 편이다.

동포동은 대부분의 가구가 참외와 수박을 비닐하우스에 재배하여 주 소득원으로 삼고 있는데, 이 마을에서 본격적으로 참외를 재배하여 소득을 높히게 된것은 약 10년전 부터이며 성주군내에서도 농가소득이 높은 부유한 동네에 속한다.

이 마을은 전통적인 농가와와는 전혀 다른 농번기와 농한기를 갖고 있는데, 즉 이곳의 농사철은 11월 말경 부터 시작되어 12월 20일경까지 거름주고 논갈고 땅을 골라 하우스를 짓는다. 1월 초에 파종을 하며 2월 초까지 접을 부쳐서(참외+호박) 옮겨 심고 3월 초 수정하기 전 까지 물주고 풀뽑고 농약살포등을 한다. 수정후 3월 중순 부터는 출하 때 까지 순치기를 계속 해야 하며 4월말~5월초 부터 7월말 까지 출하하게 된다. 그후는 논농사를 짓는다. 이런 특작은 특히 손이 많이 가는 노동집약적인 농업으로 이곳 주민들은 벼농사 기간을 오히려 농한기로 생각하고 있었다. 접부쳐서 옮겨 심을 때 부터 출하 때 까지는 특히 주부들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때의 작업환

경은 비닐하우스 내부가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매우 좋지않은 상태이고 이 때문에 한낮(11시경~14시경)의 작업은 할 수 없다.

소득은 논 900평 1단지에 참외 5동의 비닐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데 1988년의 경우 1동당 15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참외를 견고 난 후 벼농사에서 110만원~120만원(벼 2700근~3000근)의 소득을 올렸다. 즉 900평 당 총소득은 860~870만원 정도이고 참외농사에 들어가는 생산비는 1동당 40~50만원으로 소득의 1/3가량이다²⁾.

2) 전통농지역-경상북도 영천군 화산면 석촌동

화산면소재지에서 1.5km, 영천시에서 약 9km 떨어진 석촌동은 영천군의 서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동네에서 영천~안동에 이르는 국도변까지는 10분정도 걸어야 한다. 영천군내 3개 농공단지 중 하나인 화산 농공단지가 면소재지에 있으나 아직 완전한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 주 산업은 쌀농사이며 겸하여 양파와 마늘을 재배하고 과수와 양잠을 하는 가구도 10여호 있었다. 주로 많이하는 양파농사는 3월초~중순에 걸쳐 비닐에 구멍을 내주고, 5월 20일경 단시일에 수확을 하게 되며 벼농사는 일반적인 일정에 따른다.

소득은 1마지기(200평)당 벼농사로 25~30만원(450~650근)이며 양파는 가격의 차이가 심해 해마다 다르나 1988년에는 마지기당 200포 정도 생산하여 1포당 2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양파를 대량으로하는 가구는 없고 대체로 각 가구당 집근처에 1~2마지기씩 심고 있었다³⁾.

성주와 영천을 비교해 보면, 성주의 경우 주 소득원은 참외·수박이고, 벼농사가 부 소득원이며 그외의 다른 발작물은 거의 경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천은 주 소득원이 벼농사이며 양파와 마늘등의 환금작물을 부 소득원으로 하며 그외 소량의 깨, 콩등의 발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다.

2. 조사도구 및 조사절차

조사도구는 농촌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알아보기 위한 생활시간표와 가사노동실태 및 가사노동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시간표는 주부가 전일의 활동내용을 기억토록 하여 면접자가 기록하는 전일기억 조사자 기록법으로, 시간 간격은 15분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을 알아 보기 위한 것과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실태, 가사노동환경을 살펴 보기 위한 것으로 예비조사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조사절차는 2월 10일경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대상군을 선정하고, 그후 각군청 및 면사무소와 조사대상 지역 동장과 부녀회장을 각각 2~3회씩 방문하여 마을 사정을 파악하였다. 예비조사는 1989년 3월 5일~6일에 걸쳐 각각의 조사대상 마을 인근 마을에서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1989년 3월 17일~3월 26일에 걸쳐 두 마을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 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동포 1동의 총 80여가구 중에서 면접 가능한 69가구와 석촌동의 총 90가구 중 가능한 76가구를 조사하여 145가구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면접원은 사전 훈련을 받은 대구대 가정관리학과 학생 4명과 본 연구자가 실시하였다.

자료처리는 대구대학교 전자계산소의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X²검증 T-검증 및 다변량 회귀분석을 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가족상황을 표 2에서 보면 상업농지역인 성주와 전통농지역인 영천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연령 및 결혼기간에서 성주는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45.2세, 평균 결혼기간이 23.1년인데 비해 영천은 평균 연령 52.6세, 결혼기간은 평균 32.8년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천의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68%가 50세 이상의 주부로 40세이하의 주부는 단지 7%에 불과해 성주에 비해 훨씬 노령화한 상태이다.

동거가족 형태 및 가족수에 있어서도 성주는 3세대

주 2) 1986년도 상주군 통계연보 및 동포1동 윤탁훈 동장님의 설명.

주 3) 1988년 영천군 현황 및 석촌동김진호 동장님 설명.

단위: %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결혼기간	성주 (N=69)	영천 (N=76)	전체 (N=145)	응답자의 연령		응답자 교육 정도	성주 (N=69)	영천 (N=76)	전체 (N=145)
				성주 (N=69)	영천 (N=76)				
가정형성 및 자녀 출산기(1-12년)	28	3	14	T=5.06***		부학	17	55	38
자녀양육 및 교육기(13-24년)	27	17	23			국졸	54	45	48
자녀결혼기 (25-38년)	29	52	41			중졸이상	29		14
노년기 (38년-)	16	28	22						
평균	23.1년	32.8년	28.2년	T=5.06***		- 500만원	28	87	59
-39세	36	7	21			500만원 ~ 1000만원	30	8	19
40-49세	23	25	24			1000만원 ~ 1500만원	29	1	14
50-59세	28	52	41			1500만원 ~	13	3	8
60세 -	13	16	14			963만원	431만원	684만원	
평균	45.2세	52.6세	49.1세	T=4.59***		평균	963만원	431만원	684만원
1세대	17	46	32	X ² =21.15***		- 0.5ha	39	41	40
2세대	46	45	46			0.5-1.0ha	54	34	43
3세대이상	36	9	22			1.0-1.5ha	6	21	14
						1.5ha-	1	4	3
						평균	1701평	2126평	1952평
1인	3	12	8			- 0.5ha	57	43	50
2인	25	42	33			0.5-1.0ha	33	36	34
3-5인	56	43	50			1.0-1.5ha	4	16	10
6인이상	16	3	9			1.5ha-	6	5	6
평균	3.9인	2.8인	3.3인	소유면적		평균	1738평	2056평	1905평

이상의 확대가족이 36%이었으나, 영천은 확대가족의 비율은 9%인데 반하여 1세대 가족 즉 본인 혼자이거나 부부만이 동거하는 가구의 비율은 46%로서 전체의 절반 수준이나 되었다. 이런 차이는 가족형태 뿐 아니라 가족수에서도 나타나는데 영천의 경우는 마을 전체 가구의 54%가 가족수 2인이하의 가구였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 역시 성주와 영천은 큰 차이를 나타냈는데 교육은 연령과 반비례한다고도 볼 수 있다. 영천의 경우는 전 조사대상자가 국졸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연간소득은 상업농지역인 성주의 소득이 전통농지역인 영천인 2배이상이었으나 경지면적은 오히려 작아서 성주가 평균 1761평, 영천이 2126평이었다.

한편 표 2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주부가운데 남편이 없는 경우 즉 여성가구가 전체의 18%(26가구)였는데 특히 영천의 경우는 마을 전체의 23.7%가 남편이 없었다. 이 경우 모든 농사일과 가사일의 책임이 주부에게 있으므로 일의 부담은 더욱 과중해지며 특히 주부 1인 가구의 경우는 그들의 식생활이나 여가시간 활용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진다.

2. 가사노동시간 및 실태

먼저 표 3에서 조사대상자의 농업노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조사시기가 상업농지역인 성주에서는 농번기가

표 3. 조사대상자의 노동시간 단위 : 시간 : 분

	성주	영천	전체
취업노동	42	41	41
농업노동	7 : 13	1 : 30	4 : 30
가사노동	3 : 31	3 : 38	4 : 13
가사노동 (식생활 영역)	식생활 영역	1 : 55	1 : 48
	식사준비	1 : 26	1 : 20
	설거지	29	26
	의생활 영역(빨래등)	35	30
	주생활 영역(청소등)	36	34
	구매, 기록	3	10
	가족 돌보기	21	10
	기타	0	26
	총 노동시간	11 : 25	5 : 48

고 전통농지역인 영천에서는 농한기임을 알 수 있는데 성주의 농업노동시간은 7시간 13분이고 영천의 농업노동시간은 1시간 30분이었다. 이를 표 1에서의 노동시간과 비교해 보면 1988년 농촌진흥청조사의 농번기 및 농한기의 농업노동시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시기라도 농업의 성격에 따라 농번기와 농한기로 나누어지므로 농촌조사에서 이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가사노동시간은 성주가 3시간 31분, 영천이 3시간 38분으로 통계적으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T값 = 0.34). 영역별 가사노동시간을 보면 농한기에 있는 영천의 주부가 구매 및 기록을 제외한 전영역에서 오히려 더 적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일반적으로 농촌주부의 농번기 가사노동시간이 농한기 가사노동시간 보다 짧은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특히 농한기인 영천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적은 이유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가사노동시간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가족수 및 가족형태, 또 주부의 연령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조사시기중 전통농지역인 영천의 조사대상자 가운데 가족수가 1~2인인 주부들의 상당수가 거의 가사노동을 하지않고 이웃집에 모여 공동으로 지내고 있었다. 이들은 잠만 집에서 자고 아침일찍부터 모여서 하루 종일 같이 지낸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령이 대부분 50세이상이고 가족도 없으므로 농한기라고 하여 특별히 가사노동이 증가할 이유가 없었다.

가사노동수행의 변화를 보기 위해 가사노동의 양과 힘든정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가사노동의 양이 줄었다고 응답한 주부는 52.8%이며 늘었다는 주부는 34.7%였다. 이는 지역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p<.01) 성주지역 보다 영천지역 주부들이 더많이 가사노동의 양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가사노동의 힘든 정도는 더 쉬워졌다는 응답과 더 힘들어 졌다는 응답의 비율이 비슷했고 지역간의 차이도 없었다.

한편 가사노동의 양이 줄거나 늘어난 이유에 대해, 먼저 집안일이 준 이유는 지역간 차이 없이 가족수가 감소해서라고 응답했으며 집안일이 늘어난 이유는 가족수의 증가 및 자녀 뒷바라지의 증가를 들고 있었다. 또 집안일이 더 쉬워진 이유는 지역간 차이 없이 가

표 4. 집안일의 양과 힘든 정도

	집안일의 양			집안일의 힘든 정도		
	줄었다	비슷하다	늘었다	더 쉬어졌다	비슷하다	더 힘들어졌다
성주 (N=69)	29(42.0)	15(21.7)	25(36.2)	34(50.0)	8(11.8)	26(28.2)
영천 (N=76)	47(62.7)	3(4.0)	25(33.3)	35(46.70)	3(4.0)	37(49.3)
전체 (N=145)	76(52.8)	25(36.2)	50(34.7)	69(48.3)	69(48.3)	63(44.1)
$X^2=12.03^{**}$, ** : $P<0.1$				$X^2=3.87$ N.S.		

표 5. 가정기기별 보유율, 사용정도 및 기여정도

기 기 명	보유율(%)	사용정도 ¹⁾	기여정도 ²⁾	유용도 ³⁾
석유곤로	28	1.90	1.69	0.92
전기밥솥	61	2.86	2.45	3.24
보온밥통	40	2.70	2.27	1.90
겸용밥솥	34	3.84	2.70	2.26
가스렌인지	90	3.90	2.90	6.12
냉장고	87	2.44	2.57	4.29
압력밥솥	17	2.52	2.25	0.81
전기후라이팬	17	1.68	1.74	0.57
전자렌인지	1	2.00	2.50	0.05
커피포트	26	1.62	1.58	0.77
믹서	4	1.71	1.76	1.12
재봉틀	64	1.26	1.22	1.45
다리미	74	1.86	1.86	2.67
빨순이	8	3.0	2.73	0.43
세탁기	32	3.21	2.79	1.95
전자동세탁기	3	3.33	3.0	0.13
입식부엌 (싱크)	13	4.0	3.0	0.87

1) 사용정도는 해당기기를 소유치 않은 가구는 제외하고, 1: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 가끔 사용한다 3: 자주 사용한다 4: 매일사용한다의 4점 척도로 평균값을 낸 것이다.

2) 기여정도 역시 소유하지 않은 가구는 제외하고, 소유한 가구의 기여정도를 1: 별로 도움이 안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아주 도움이 된다는 3점 척도로 하여 평균값을 낸 것이다.

3) 유용도는 각 기기가 농촌가정에서 얼마나 사용되며 또 실제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한 것으로 사용정도와 기여정도를 합한 값(7.0)을 평균한 것이다(보유율에 따라 값의 차이가 있다).

정기기의 보급 및 설비의 개량이라고 응답했으나, 일이 힘들어진 이유는 성주의 주부들이 농사일의 증가를 그 이유로 응답한 반면(81%), 영천의 주부는 43%가 나

이가 들어서 힘들어졌다고 응답하여 지역적인 특성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p<.001$). 즉 집안일의 양에는 가족수가 영향을 미치며, 집안

일이 더 쉬워진 이유로는 가정기기보급 및 설비상태 개선이고, 더 힘들어 진 이유는 나이가 들거나 농사일의 증가 때문이라고 주부들은 느끼고 있었다.

만일 농사일이 바빠져서 가사노동시간을 줄이게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시간을 줄이게 되는 집안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지역간의 차이 없이 43%가 청소, 18%가 빨래, 13%가 설겅이라고 응답하였다. 여기에서 농번기에 가장 소홀하게 되는 집안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3. 가정기기 및 설비의 수준

1) 가정기기

표 5에서 가정기기의 보유율을 보면 가스레인지의 보유율이 90%로 가장 높는데 이는 선행연구들과(조희금 1987, pp99; 한국여성개발원 1987, pp90-93) 비교하여 볼 때 그 보급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또 냉장고, 세탁기 및 입식부엌의 보유율도 높아지고 있다. 각 기기를 소유한 가정의 기기 사용정도를 보면 이 역시 가스레인지가 3.90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겸용 전기밥솥, 세탁기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봉틀이나 다리미등 의생활관련 기기들은 보유율은 높으나 사용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농촌가정에서 바느질이나 다림질등의 의생활관련 분야 노동이 많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정기기의 사용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본 기여도는 입식부엌과 세탁기, 가스레인지, 냉장고, 전기밥솥의 순으로 나타나서, 현재 농촌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에 대한 평가도를 알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기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유용한가를 직접 질문한 결과와 비슷했다. 즉 주부들이 가장 유용하다고 답한 기기는 가스레인지(39%), 전기밥솥(22%), 세탁기(15%), 겸용보온밥솥의 순이었다.

또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가운데 앞으로 마련했으면 하는 기기로는 42%의 주부가 세탁기를 14%가 입식부엌을 8%의 주부가 냉장고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런 종류의 기기가 농촌가정에 보급되면 주부의 가사노동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표 5의 유용도는 각 기기가 농촌에서 어느정도 보급되어 얼마나 사용되며 또 어느정도 도움이 되고 있

는가를 살펴 본 것으로 가스레인지, 냉장고, 전기밥솥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탁기나 입식부엌등은 사용정도나 기여도는 높지만 보유율이 낮으므로 유용도가 낮고, 재봉틀은 보유율은 높으나 사용정도나 기여도가 낮으므로 유용도는 낮다.

각 가구의 평균기기 보유수는 성주가 6.4가지 영천이 5.8가지였으며, 전체기기의 사용 및 기여정도는 성주 지역이 영천지역 보다 높았다($p < .001$).

한편 농촌지역의 연료를 살펴보면, 주된 취사연료로는 전기(45%) 가스(43%) 연탄(6%) 나무(3%)를 사용하고, 보조 취사연료로는 가스(41%) 전기(26%) 연탄(17%)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난방연료는 73%가 연탄을, 24%가 나무를 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농촌에서도 연료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취사연료는 전기와 가스, 난방연료는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연료사용에서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2) 작업장소

작업장소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 하수도의 위치, 부엌바닥의 상태, 식사실과 빨래터의 위치 및 작업대의 높이를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지역 가정의 대부분이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부엌안에 설치된 경우는 33%뿐 이었고, 부엌안에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가정은 32%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부엌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33%나 있었다.

부엌과 식사장소의 연결을 보면 전체의 63% 정도가 부엌에서 상을 차려 밖으로 나왔다가 마루를 거쳐서 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는 단지 6%만이 부엌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고 또 쪽문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32%에 불과해서 부엌과 식사실 사이의 동선이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엌 작업대의 높이는 작업자의 피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부엌용 기기를 고려할 때 적절한 부엌 작업대의 높이는 작업자 신장의 52% 정도이다(장명옥 1983, pp254~256). 조사대상 가구의 41%는 자기 신장의 30%에도 못미치는 낮은 작업대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신장의 46~52%정도 높이의 작업대를 갖춘 가구는

표 7. 주부의 가사노동 전담율

단위 : %

조사시기 영역	1969 ¹⁾	1974 ²⁾	1976 ³⁾	1979 ⁴⁾	1983 ⁴⁾	1988 ⁴⁾	1989 ⁵⁾
밥짓기	69.0	74.3	55.1	97.9	99.1	98.4	98
설겅이	54.5	71.4		100	100	97.6	97
장담그기	89.0(31.6)	97.1(35)					96
세탁	75.5	77.1	61.2	100	100		97
						100	
바느질	89.0	88.6		100	100		92
뜯 청소	21.5	31.4		76.3	82	66.7	85
젓먹이 보기	17.0	68.6(50)					96.7
				73.1	83.3	77.1	
아이버릇고치기	24.5	71.4-31.4 (65-25)					63.0
장보기·관리			69.5	76.2	80	63.0	64

()는 확대가족

자료 : 1) 최재석 : 1975, PP129-37

2) 박부진 : 1975, PP33-34

3) 이효재·김주숙 : 1976, P345

4) 농촌진흥청 : 1981, 1984, 1988- 주부와 경영주의 가사노동 시간중 주부가 차지하는 비율이므로 다른 가족의 가사노동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임

5) 본조사

중한 노동의 부담이 있게 되는 것이다.

농촌주부의 가사분담 의식은 남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해야한다는 생각이 (42.3%) 여자들만 해야한다는 의견 보다(18.3%) 높았으나, 자기 가정의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41%가 만족, 32%가 그저 그렇다, 21%만이 불만족이라고 답하여 가사분담 의식과는 일치되지 않는 면을 보였다.

한편 가족중 희망하는 가사분담자로는 46%가 없다고 했으며 34%가 남편, 11%가 시어머니로 나타나 부부가족인 경우는 남편에게, 확대가족의 경우는 시어머니에게 가사분담을 희망하고 있었다. 특히 남편에 대한 희망은 자녀에 대한 가사분담 희망이 딸, 아들 각각 3%인데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내에 주부를 도울만한 자녀가 없는데도 그 원인이 있지만, 농촌주부의 가사분담의식에서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5. 가사노동의 사회화 정도

농촌은 도시와는 달리 전반적인 사회화의 정도가 낮으며, 제한된 부분에서 식생활영역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회화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농번기 공동취사 여부 및 탁아소이용정도 그리고 가공식품의 이용정도 및 일꾼들의 점심 해결 방법을 살펴 보았다.

두 지역 모두 농번기 공동취사의 경험은 없었으며 탁아소 역시 운영되지 않았다. 가공식품 중 라면류, 구이김, 커피는 각각 69%, 41%, 33%가 월 1~2회 이상 이용하고 있었다. 일꾼들 점심은 64%의 가구가 집에서 마련하고 있었으며 24%의 가구는 음식점에서 시켜다 주고 있었다. 일꾼들의 점심 해결을 포함한 가공식품 이용정도는 두 지역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p < .001$) 성주의 이용정도가 높았다.

표 8.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종속변수=가사노동시간)

	독립변수	B	β	r
성주 (N=67)	연령	-1.185	-0.515	-0.562***
	농업노동시간	-0.319***	-0.520	-0.539***
	경작면적	0.334**	0.290	0.249*
	가족수	41.396*	0.215	0.512***
	상수 R ²	297.472 0.550		
영천 (N=73)	사회문화적시간	-0.438***	-0.882	-0.343**
	농업노동시간	-0.418***	-0.585	-0.057
	생리적시간	-0.390***	-0.530	-0.052
	경작면적	0.223**	0.254	0.119
	가공식품이용도	9.963*	0.199	0.247
	상수 R ²	662.534 0.443		

B: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β : 표준화된 회귀계수

r: 단순상관계수 R²: 결정계수

*: P<.05 **: P<.01 ***: P<.001

6.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혀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에 따라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표 8에서 보면 성주지역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농업 노동시간으로($\beta = -0.520$) 농업 노동을 많이하는 주부일 수록 가사노동시간은 적어진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경작면적($\beta = 0.290$)과 가족수($\beta = 0.215$)로서 경작면적이 넓을 수록 가족수가 많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한다. 연령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으나 연령이 증가할 수록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4가지 변수의 설명력은 55%로 가사노동시간의 분산을 1/2 이상 설명해 주고 있다.

영천지역의 가사노동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사회·문화적인 시간으로($\beta = -0.882$) 사회문화적인 시간을 많이 갖는 주부일 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적어진다. 다음은 농업노동시간($\beta = -0.585$), 생리적인 시간으로($\beta = -0.530$) 각각의 시간이 증가할 수록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며 경작면적($\beta = 0.254$), 가공식품

이용도($\beta = 0.199$)가 증가할 수록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한다. 이들 변수는 영천지역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의 분산을 44% 설명해 준다.

즉 농번기인 성주지역의 가사노동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농업 노동시간이고 농한기인 영천지역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회·문화적인 시간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농사일이 더 바빠져서 집안일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의 대안으로 농촌의 주부들은 59%가 집안을 대강할 수 밖에 없다고 했으며, 13%는 집안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편리한 기기의 사용, 10%는 주부 자신의 수면 및 여가시간의 감소, 7%가 가사분담에 의해서 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농촌주부가 수행해야 하는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비교할 때, 농업노동은 그 특성상 시간적인 수요가 긴박하며 또 중요한 생산노동이므로, 앞으로도 농촌 주부에게 있어서 농업노동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리라고 예측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노동시간의 증가는 가사노동시간의 감소로 이어지고, 또 주부 자신들도 농번기에는 가사노동의 질을 저하시키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할때 과도한 가사노동시간의 감소는 가정생활

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또 현재 농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성주지역 주부들은 자녀교육문제를, 영천지역 주부들은 농산물 가격의 안정문제를 선택하므로서($p < .001$)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각각 지역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농촌주부가 늘어나는 농업생산자적 역할과 함께 아직도 중요한 비중으로 남아있는 가사노동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주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가사노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사노동 환경을 농업의 성격에 따라 전통농지역과 상업농지역으로 나누어서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의 성격에 따라 그 지역주부의 평균연령, 가족형태 및 가족수, 소득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즉 상업농지역인 성주는 주부의 평균연령이 전통농지역에 비해 젊으며, 가족형태도 전통농지역에 비해 3세대가구의 비율이 높고, 가족수도 가구당 평균 1.1인이 더 많았다. 또 경작면적은 영천에 비해적이지만 소득은 영천의 2배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시간을 보면 조사시기가 같은 3월 중순이었으나 상업농지역 성주는 주부의 1일 평균 농업노동시간이 7시간 13분에 달하는 농번기이고, 전통농지역 영천은 농업노동시간 1시간 30분의 농한기였다.

두지역이 각각 농번기와 농한기라는 다른 상태에 있었음에도 가사노동시간은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농한기인 영천지역의 가사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집안일의 양은 영천지역 주부들이 더많이 줄었다고 응답했으며 집안일이 힘든 이유는 성주지역은 농사일의 증가 때문에 영천지역은 나이가 들어서라고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셋째, 가사노동환경을 살펴보기 위한 가정기기의 보유 및 사용정도, 설비 즉 작업장소의 상태와 가사노동의 사회화정도를 보여주는 가공식품이용도는 모두 상업농지역인 성주가 영천에 비해 상태가 좋았다.

넷째,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농번기인

성주지역은 농업노동시간이, 농한기인 영천은 사회문화적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다섯째, 두지역 공통으로 앞으로 농업노동이 더 늘어나게 되면 가사노동을 대강할 수 밖에 없으며, 현재 농촌에서 가장문제가 되는 것으로 성주지역은 자녀교육문제를 영천지역은 농산물가격의 안정 문제를 들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과 함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농촌은 농업의 성격에 따라 농가의 가족상황, 경제상황, 노동상황이 크게 다르다. 예를들면 주부의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환경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내므로, 농촌의 가정 나아가 농촌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농업의 성격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의 수행이 필요하게 되는데, 앞으로 농촌에서 가사노동 환경이 더 향상되지 않은채로 농업노동이 점점 증가될 경우 가사노동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가정의 삶의 질의 저하를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농촌가정의 가정기기 보급 및 설비수준의 향상과, 주부 1인에게 전담되어 있는 가사노동의 가족원내 분담 및 국가사회적인 서비스의 보급을 확대하므로서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전통농지역에서 그 비율이 특히 높은 노령의 주부 1인가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들의 경우는 거의 가정생활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부의 식생활, 여가생활의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노인문제와도 연결하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경제기획원 : 총인구 및 주택 센서스 1970, 1975, 1980
- 2) 경제기획원 : 한국의 사회지표 1984, 1985, 1987
- 3) 김동일 외 : 한국농촌주민의 삶의 질.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1981
- 4) 김선희 : 도시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변화와 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1) : 111-126, 1989
- 5) 김애실 :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한국여성개발원 :

- 여성연구 3(4) : 25-48, 1985
- 6) 김영란 : 한국농촌여성을 위한 일고찰. 한국여성개발원 : 여성연구 7(2) : 77-93, 1989
 - 7) 김주숙 : 한국의 농촌여성.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 여성학. 이화여대출판부, 1979
 - 8) 김주숙 : 농촌여성문제 소고. 한국사회학 15 : 49-60, 1981
 - 9) 김주숙 : 농촌여성의 농업생산 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농촌경제 5(2) : 34-49, 1982, 6
 - 10) 김주숙 : 한국의 농촌여성 발전을 위한 논고. 여성연구 2(3) : 43-73, 1984a
 - 11) 김주숙 : 한국에서의 농촌여성 발전을 논함.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도시 영세여성 및 농촌여성 발전을 위한 전문가 그룹회의 보고서, 1984b
 - 12) 김주숙 : 해방40년과 농촌여성 지도정책 고찰. 변형운 외 :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도서출판 까치, 1985
 - 13) 김주숙 : 농촌여성연구의 방향과 내용, 여성학 응용 : 여성학 발전. 이화여대여성학연구소 : 여성학논집 4 : 167-198, 1987
 - 14) 김주숙 : 여성농민의 지위와 역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한국농업. 농민 문제 연구 1 : 493-520, 연구사, 1987
 - 15) 김주숙 : 농촌여성과 일—그 체계와 보상—.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 한국여성과 일 : 213-246, 이화여대출판부, 1985
 - 16) 김혜경 : 가사노동 이론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85
 - 17) 김효숙 : 도시와 농촌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83
 - 18) 남명희 : 주부의 시간관리 실태조사. 강릉교대논문집 5 : 269-283, 1973
 - 19) 농림수산부 : 농가경제조사. 1979, 1985, 1988
 - 20) 농림수산부 : 농림수산물통계연보, 1988
 - 21) 농림수산부 : 1988년도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88
 - 22) 농촌진흥청 :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 보고서, 1981, 1984, 1988
 - 23) 문숙재 : 가사노동의 가치와 평가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0(4) : 1980
 - 24) 문숙재 : 가정생산. 신광출판사, 1988
 - 25) 문숙재 : 가정생산의 가치와 평가. 이화여대한국여성연구소 : 여성학 영역별 연구 152-195, 이화여대출판부, 1989
 - 26) 문숙재 · 정영금 :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본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대한가정학회지 22(1) : 169-188, 1984
 - 27) 문숙재 · 채옥희 : 가사노동. 신광출판사, 1986
 - 28) 문숙재 · 홍성희 :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가사노동사회화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3) : 153-170, 1988
 - 29) 박부진 : 한국농촌가족의 역할구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75
 - 30) 박현채 : 농업, 농민문제에 대한 인식. 박현채 외 : 한국 농업문제의 새로운 인식 : 13-32, 돌베개, 1988
 - 31) 박현채 : 한국자본주의의 전개와 농업. 농민문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한국농업 농민문제연구 1 : 27-63. 연구사, 1988
 - 32) 손덕수 : 가사노동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 한국여성과 일 : 247-293. 이화여대출판부, 1985
 - 33) 이기영 :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본 가사노동의 의의와 그 전개. 고대사논집 6 : 207-223, 1981
 - 34) 이기영 : 가사노동의 경제적 의의와 평가에 대한소고. 고대사대논집 7 : 125-145, 1982
 - 35) 이기영 :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1987년도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1987a
 - 36) 이기영 :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 45-64, 1987b
 - 37) 이동원 : 직업여성의 이중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제27집, 1976
 - 38) 이미경 : 농촌빈곤과 농촌여성.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편 : 한국의 가난한 여성에 관한 연구 : 131-226. 민중사, 1983
 - 39) 이영심 : 농촌주부의 시간사용과 가사기구 및 설비에 관한 연구. 연대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76
 - 40) 이윤근 : 주부노동의 가치. 효성여대 : 여성문제연구 5 : 1976
 - 41) 이연주 :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정내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4) : 131-146, 1984
 - 42) 이정수 : 가족의 가사노동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4) : 103-132, 1984

- 43) 이정수·고경애 :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3(2) : 67-90, 1985
- 44) 이효재 :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 *이화여대 :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30 : 323-364, 1977
- 45) 장명옥 : 가정관리학. 교문사, 1983
- 46) 장운식 : 향도농민-상업적 농업의 흥기-서울대 부설 인구및 발전문제연구소 : 사회변동의 이론과 실제. 109-125, 서울대출판부, 1985
- 47) 정영일 : 한국농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박현채 외 : 한국 농업문제의 새로운 인식 : 33-66, 돌베개, 1984
- 48) 조 형 : 농촌사회의 변화와 농촌여성.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 한국사회개발연구(V) : 207-274, 1981
- 49) 조희금 : 농촌주부가 인지한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 가정생활연구 1 : 29-43, 1986
- 50) 조희금 : 농촌주부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I). 대구대학교 가정생활연구 2 : 93-104, 1987
- 51) 최명숙 외 :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가치 추정. *대한가정학회지* 25(4)99-112, 1987
- 52) 최양부 : 농촌가족(I).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현대사회와 가족 : 341-363, 1986a
- 53) 최양부 :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전통농촌의 해체 : 한국농촌에 대한 인식의 틀을 위한 하나의 시론. *한국사회학* 19 : 121-141, 1986b
- 54) 최재석 : 한국농촌사회연구. 일지사, 1975
- 55) 최재석 : 한국농촌사회 변동연구. 일지사, 1988
- 56) 한국여성개발원 : 농촌여성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84
- 57) Beechy V : *Women and production*. A. Kuhn & A.M. wolpe(eds.) : *Feminism and materialism*. Routledge & Kegan Paul, 1978. 강선미 역 : 여성과 생산양식 : 139-177. 도서출판 한겨레, 1981
- 58) Bertler IF & Owen AJ : *Home production activity model*. *HERJ*, 9(1), 1980
- 59) Colson M : *Housfrauen & hausarbeit in kapitalismus*. *Die Internationale* : 43-58, 1975 손덕수 : (1985) 가사노동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p258에서 재인용
- 60) Smith P : *Domestic labor and Marx's theory of value*. A. Kuhn & A.M. Wolpe(eds.) : *Feminism and materialism*. Routledge & Kegan Paul, 1978. 강선미 역 : 여성과 생산양식 : 179-200. 도서출판 한겨레, 1986
- 61) Strober MH & Weinberg CB : *Strategies used by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to reduce time pressur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 : 338-348, 1980
- 62) Walker KE & Woods ME : *Time use :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Center for the Family of the AHEA, 1976
- 63) 大森和子 외 : 家事労働 東京 : 光生館, 1981